

## 《깊이 새겨주신 뜻》

우리 사회에는 온 가족이 대를 이어가며 애국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가정들이 많다.

군인가정, 교육가정, 과학자가정, 체육인가정...

이렇듯 훌륭한 가정들을 하나하나 꼽아볼수록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과학기술의 시대에 높이 내세워주신 애국자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주체 104(2015)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과학기술전당을 돌아보실 때였다.

최신과학기술보급의 중심거점으로 훌륭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만족속에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깊은 감회를 담아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당에서는 건설해야 할것이 많고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과학연구기지과 과학기술보급기지, 과학자들의 살림집부터 건설하고있다.

최근년간 평양시에 과학자거리만하여도 세개나 일떠섰다.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들도 새로 일떠섰다. 몇년동안에 이런 건축물들을 일떠세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그러시면서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의 뇌리에는 우리 당의 은정속에 과학자라는 이름과 더불어 솟아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떠올랐다.

이날 과학기술전당과 함께 일떠선 과학자숙소에도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지금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워주는 시대이다.앞으로는 자식을 낳아  
맡이는 인민군대에 보내고 둘째는 과학자로 키운 가정을 애국자가정으로  
내세워주어야 한다.

정녕 그이께서 지니신 과학중시의 뜻과 의지가 얼마나 숭고한가를,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절감할수 있게 하는  
말씀이었다.